

화장품제조사, R&D 투자 확대 '피부전달체' 등 신기술 쏟아져

지난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주력

**코스맥스 500억 이상 R&D 투자
한국콜마 '마이크로바이옴' 발견**

'K뷰티' 흥행과 함께 활기를 띠고 있는 국내 화장품 제조업사들이 연구개발(R&D)로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화장품 연구·개발·생산 기업 코스맥스는 지난 2023년 R&D 비용 증가폭을 두 자릿수로 늘렸다. 코스맥스의 R&D 비용은 2023년 기준 542억원으로 2022년 484억원에서 12% 증가했다.

코스맥스는 중국과 미국법인에서도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코스맥스 차이나는 2023년 R&D에 254억원을 투입했다. 이는 2022년 218억원 대비 16% 늘린 규모다. 같은기간 전체 매출액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5.04%에서 1.31%포인트 늘어난 6.35%를 기록했다.

코스맥스 USA는 2023년 R&D 비용으로 61억원을 썼다. 2022년 29억원

에서 110% 급증했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용의 비율도 상승했다. 2022년 3.48%에서 4.38%로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스맥스는 새로운 기술 개발 성과를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

코스맥스는 지난 22일 '세라마이드'의 결정화 문제를 해결하는 신개념 피부전달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코스맥스에 따르면 세라마이드는 피부장벽을 개선하는 핵심 소재로 더마 화장품 개발에서 주요하게 활용된다. 세라마이드는 물에 녹지 않는 결정성 물질이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제품 내에서 세라마이드 결정화가 진행돼 화장품 제형의 점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코스맥스와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김진웅 교수 연구팀은 친환경 소재인 셀룰로오스를 이용해 세라마이드의 결정화를 억제하고 화장품 성분의 안정화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또 코스맥스는 최근 세계 최초로 문제성 피부에 효능을 가진 피부 마이크

로바이옴 성분도 개발했다. 코스맥스는 아토피 같은 문제성 피부 질환에 주로 처방되는 스테로이드성 제제를 대체할 병원용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콜마도 R&D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콜마의 2023년 R&D 비용은 1274억원으로 2021년 1051억원에서 2022년 1220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2021년 6.99%, 2022년 6.48%에서 2023년 5.79%로 감소했다.

한국콜마는 올해 피부 광노화 억제 '마이크로바이옴' 발견, 더마테스트와 새로운 화장품 효능 평가법을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탈모 완화 기능성 원료인 고삼뿌리추출물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K뷰티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뷰티 업계는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R&D에 지속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며 "특히 새로운 유형의 제품개발에는 기술융합이나 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매일유업 "'어메이징 오트' 만나보세요"

매일유업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어메이징 모닝식당' 이란 콘셉트로 출근길 직장인들에게 어메이징 오트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삼바에피스, '피즈치바' 유럽 품목허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시장 선도

삼성바이오페스가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유럽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시장 문을 열고 있다.

삼성바이오페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피즈치바(프로젝트명 SB17)'의 품목허가를 최종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2월 유럽 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로부터 품목허가 '긍정의견'을 획득한 후 약 2개월 만의 성과다.

'피즈치바'는 삼성바이오페스가 개발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다. 피즈치바의 오리지널 의약품 스텔라라는 안센이 개발한 관상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다. 스텔라라 물질 특허는 유럽에서 오는 7월에 만료된다.

아울러 이번 유럽 허가로 삼성바이오페스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게 됐다.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SB4,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SB2, 휴마라 바이오시밀러 SB5 등 중양과사인자 알파(TNF- α) 억제제 3종에 이어 인터루킨 억제제까지 선보여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페스는 지난 2023년 9월 스위스 산도스와 피즈치바의 유럽 및 북미 판매를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시장 판매는 산도스가 맡는다.

한편, 삼성바이오페스는 국내에서도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SB17의 승인을 받아 국내 최초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획득했다.

/이청하 기자

종근당, 'CA102' 파이프라인 확보 (유전자치료제)

큐리진 계약... shRNA 기술 적용
표재성 방광암 치료제 개발 계획

종근당이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을 폭넓게 구축하고 있다.

종근당은 지난 22일 RNAi 기반 유전자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큐리진과 '유전자치료제 CA102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종근당은 CA102에 대한 글로벌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종근당은 CA102를 독점 연구해 표재성 방광암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종근당에 따르면 CA102는 다양한 암 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분자를 인식하도록 개조한 중앙용해 바이러스에 shRNA를 삽입한 유전자치료제다.

특히 큐리진의 독자적인 이중표적 shRNA 제작 기술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CA102는 세포 내 신호전달을 통해 암세포 증식과 전이에 관여하는 유전



종근당 본사 전경.

/종근당

학요법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광암 치료에도 면역 및 표적항암제가 제시되고는 있지만 내성 발생과 높은 재발률로 치료제 선택의 폭이 좁다. 그 결과 방광 적출이 불가피해지는 등 방광암 치료제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높은 실정이다.

아울러 종근당은 서울성모병원에 유전자치료제 연구센터 'Gen2C'를 개소해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과 우수한 인프라도 보유하고 있다. 종근당은 희귀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다수의 유전자치료제 개발, 핵심 기술 플랫폼 확보 등에 주력하는 중이다.

이밖에 종근당은 최근 항체-약물 접합체 기술을 도입해 ADC 항암제 개발에 나섰다. 또 세포·유전자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및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과 전략적 투자 및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 각서도 체결한 바 있다.

/이청하 기자

에이피알, 튀르키예 등 해외 판로 개척

5개국 총판·대리점 계약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이다 양한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올해 4월 기준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몰도바, 몽골, 멕시코 등 5개국 현지 업체들과 총판 또는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초 계약을 체결한 태국과 카타르를 포함해 올해만 총 7개국의 해외 판로를 확보했다.

이번 5개국과의 계약은 모두 에이피알 브랜드 중 '메디큐브' 브랜드 사업으로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 '메디큐

브 에이지알'을 포함한다.

우크라이나와 몽골 업체와는 총판 계약을, 튀르키예, 몰도바, 멕시코 업체와는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 에이피알은 현지 시장의 사정 및 예상 판매량 등에 따라 계약 형태가 다르다고 설명한다.

에이피알은 IPO 당시 밝혔던 해외 판로 확대 약속을 지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셀트리온 "램시마 제품군, 英·獨 등 시장 점유율 상승"

유럽 주요 국가서 경쟁력 입증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 제품군'이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셀트리온은 유럽 주요 국가에서 피하주사 제형(SC) '램시마SC' (성분명: 인플릭시맙)의 처방 확대와 함께 램시마 제품군의 현지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기준,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램시마SC와 정맥주사 제형 램시마가 기록한 시장 점유율은 약 74%에 이른다.

해당 국가들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 규모는 유럽 전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호실적에 대해 셀트리온은 '이중 제형 효과'로 램시마SC와 램시마 두 제품 모두 점유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이는 경쟁 인플릭시맙 정맥주사 제형 제품에서 램시마로 전환한 후, 다시 램시마SC로 처방하는 전략이다. 특히 램시마SC가 출시된 2020년부터 3년간 합산 점유율은 12%p 올랐다.

/이청하 기자

롯데월드, '월드 오브 라이트' 선봬다

어드벤처 35주년 맞아 신규 퍼레이드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개원 35주년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신규 야간 퍼레이드 '월드 오브 라이트'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신규 퍼레이드는 매일 오후 8시 펼쳐진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월드 오브 라이트는 퍼레이드 개발에만 100억원 이상의 투자비와 세계 유명 테마파크 공연

기획 및 연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투입했고 다채로운 특수 효과가 펼쳐지는 멀티미디어 쇼까지 더해 화려함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퍼레이드는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3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든 빛이 어드벤처의 대표 캐릭터 로티, 로리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멋진 파티를 만든다는 콘셉트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최빛나 기자